

서울서 무주반딧불사과 판촉행사

황인홍 군수·농협 관계자들 서울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서 소비자들 만나

무주군이 오는 21일까지 서울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사장 양시춘)에서 무주 반딧불사과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판촉행사는 맛과 품질이 우수한 무주사과를 홍보해 고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반딧불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21일까지 부사 2.5kg(10과 이내) 7,560박스를 판매할 예정이다.

18일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관련 공무원, 그리고 무주군농협 오영석 지부장, 무주농협 광동열 농협장, 구전동농협 양승욱 농협장, 반딧불조합공동법인 김석중 대표, 무주산지유통센터 이영철 센터장, 무주산지유통센터 신재구 센터장, 반딧불조합공동법인 관계자 등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만난 고객들에게 개별 포장한 맛보기용 '1입 사과'를 전달하고 포토타임 시간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특산물 판매 시장도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이번 판촉행사를 계기로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무주반딧불사과와 농·특산물을 많이 알리고 많이 팔아줬다는 의지를 가지고 서울까지 온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해서 우리 농가들도 힘을 좀 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군이 오는 21일까지 서울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에서 무주 반딧불사과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18일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농협 관계자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민선7기 무주군은 그간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위한 전국 판매망 확보에 주력해왔으며, 서울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에서는 지난 2018년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판촉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주민 이 모 씨(52세, 서초동)는 "사과가 아삭아삭하니 달고 맛이 있더라"며 "무주사과는 재작년엔가 우연히 마트에 왔다가 시식을 해보고 팬이 됐고 다른 농·특산물도 '반딧불' 상표를 달고 있으면 믿고 사게 된다"고 전했다.

무주반딧불사과(지리적표시제등록)는 해발 380m~850m의 산간 고랭지에서

서 재배돼 맛이 좋고 과육의 조직이 치밀하면서도 단단해 저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친환경농산물품평회에서 대통령상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탐푸르트 품질대상에도 선정이 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베트남과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 무주반딧불사과를 수출(총 208톤, 5억 5천여만 원)해왔으며 올해는 러시아 수출 길을 열고 3톤800kg을 선적해 해외 판매망 확대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협력

진안군-서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진안군은 18일 서부지방산림청과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이하,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군수실에서 가졌다.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산림사업 협약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비 투자에 대한 상호협력과 산림무상사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에 의해 진안군은 사업계획 공정에 맞게 지방비 부담금 내에서 관급 자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853억이 소요된다.

지난 2018년~2020년까지 기본설계와 용역을 진행했고, 지난 8월에는 동부건설을 실시설계·시공 적격자로 선정해 설계를 마치고, 오는 12월에는 시공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진안군과 함께 산림치유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적기에 준공하여 보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산림치유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진안군에서도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다양한 상생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반디별천문과학관서 부분월식 관측 체험

오늘 천문 강의·달 사진 촬영·별자리 찾기 등 프로그램 진행

무주군은 설천면 반디랜드 내에 소재해 있는 반디별천문과학관에서 달 일부가 지구에 가려지는 부분월식 관측행사를 진행한다. 18일 밝혔다.

부분월식 관측 체험은 1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천문과학관 보조관측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반디별천문과학관에 입장하면 육안 및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월식 관측을 비롯해 월식 현상에 대한 천문 강의와 해설 스마트폰을 이용한 달 사진 촬영, 가늘철 별자리 찾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부분월식은 달의 일부가 지구 본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으로 이번 월식은 19일 오후 4시 18분 24초에 달의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월식이 시작되



지만, 달이 오후 5시 16분에 뜨기 때문에 월출 이후 시점부터 관측이 가능하다. 이날 오후 6시 2분 54초에 최대, 7시 47분 24초에 부분월식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부분월식의 최대 식분은 0.978로 달의 대부분이 가려져 맨눈으

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부분월식을 놓치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다음 월식이 2022년 11월 8일 개기월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과 적정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관측행사가 진행된다.

시설사업소 관태영 소장은 "천문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반디랜드 홍보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측행사를 마련했다"며 "가족단위와 관람객들에게 천체의 신비 부분월식을 보는 흥미로운 체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측행사와 관련한 내용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3차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원

진안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

작년 6월 20만원, 12월 10만원에 이어 세 번째 지급으로 도내 지자체에서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중 최고금액이다.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절감하고, 보충교부세 추가 내시에 따라 부대비용을 포함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자와 결혼 이민자로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외국 인등록을 한 사람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12월 6일부터 마을방문으로 시작한다.

지급 방법은 기존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를 펼쳐 신청과 동시에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용기간은 2022년 2월 말까지 3개월간으로 이번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온라인, 상품권, 공공요금 등을 제외하고 진안군(전주시 호성동 소재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포함)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기간에 군민 모두의 고른 소비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을 하게 됐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엇보다도 방역을 우선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동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저소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추가 지원

장수군보건의료원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전북연합회와 연계해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퇴행성관절염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환자 중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며 한시적 추가지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은 저소득 노인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성 질환의 수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이며, 신청 방법은 1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를 지참해 장수군보건의료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노인의료나눔재단 전북연합회에서 협력 체결한 국내 정형외과에서 수술 가능하며, 단, 수술 또는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기 전에 발생한 수술비,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진안군은 18일 대규모 재난 대비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전춘성 군수 주재 하에 열린 이번 훈련은 협업부서 및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제7733부대 1대대 등 12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다시 한 번 다졌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평년보다 규모를 축소해 상황판단회의 및 토론훈련으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훈련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가스폭발로 대형화재가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모든 기관이 어떤 임무와 역할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응급처치 교육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18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및 교육 희망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북대학병원과 장수군보건의료원이 연계해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에 대해 배우며 위급상황을 인지하는 단계에서 119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 요령을 익히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골든타임을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기본원리 등을 교육용 장비를 이용해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표준심폐소생술, 구조호흡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일반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심장정지 골든타임은 4분으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 신고를 해주시고, 올바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사용으로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전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